

내가 했다 안했다 하는 생각도 그냥 묵묵히 놓고 가라!

13면에서 계속

지가 갖추어진 컴퓨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입력이 됩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것도 모른다 할지라도, 자기가 하고 가는 것을 자기가 알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는 그 자체가 바로 입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고 가는 그 자체가 입력이 되어서 입력된 것이 현실로 나오는 겁니다. 어찌해도 과거고 일 초 전도 과거입니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 과거에 있는 것이 현실에 모두 나오니까 말입니다. 컴퓨터에 입력이 되면 그대로 현실로 나오죠? 그런 거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리에 다 놔라 하는 것은 뭐냐? 그 입력된 것이 나오는 자리에서 되입력을 한다면 앞서 입력된 게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만이 과거의 모든 유전성 업보성, 그 다섯 가지가 없어질 수 있고 또한 거기는 필자 운명도 붙지 않는 자리입니다. 바로 입력된 게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말로 하든 상식으로 하든 지식으로 하든 어떠한 길로 해도 그거는 절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다시 입력을 해야만 이거는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아니라면, 타의에서 구해서 자기가 깨달을 수 없느니라.” 하신 겁니다. 여러분한테 이런 말 하죠. 여섯 가지 대신 못해 주는 게 있습니다. 밥 먹는 거 통 누는 거 자는 거 아픈 거 죽는 거 깨닫는 거, 이 여섯 가지를 누구도 대신 못해 줍니다. 대신 못해 주는 이 자체가 바로 ‘인생은 홀로 와서 홀로 간다. 그런데 가는 곳이 있느냐? 바로, 가는 곳도 그 자리로 오는 것도 그 자리로 사는 것도 그 자리!’란 말입니다.

만약에 과거가 있다고, 또 미래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 초 전에 과거였는데 현실로 오느라고 과거라고 했습니다. 현실로 오기 위한 방편에 의해서 과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로 인해서 현재로 오려면 그 사이가 미래죠. 그러니까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현재란 얘깁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현재도 공했느니라.” 하셨습니다. 공했다는 그 말을, 색이 공이요 공이 색이란 말을 아까 얘기해 드렸죠. 고정된 게 하나도 없어서 내세울 게 없기 때문에 있으면서도 없고 없으면서도 있고 그런 가운데 있느니라. 이 줄이 말입니다. 전력을 가져오려면 이쪽 줄과 저쪽 줄이 한데 합쳐져야 하고 그래서 불이 들어올 뿐입니다. 어느 누가 “스님, 참 이런 공부를 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기에 내가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너의 줄과 내 줄이 한데 합쳐져서 불이 들어올 뿐이지 내가 한 것도 내가 한 것도 바로 들어 아니다.” 이런 말을 했죠.

그러니 지금 과학이 발전했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이 터지지 않는 이상 진자 실현할 수 있는

과학을 연구 못할 겁니다. 무(無)의 세계, 정신세계 50%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의학계도 그렇습니다. 50%를 모른다면 그 반만 가지고는 사람을 100%로 건질 수가 없습니다. 모두 살고 있는 것도 99%지 100%라고는 말할 수 없겠죠. 그래서 죽는 것도 건지는 거요 살리는 것도 건지는 겁니다. 헐었던 옷을 벗어 버리게 하고 진화해서 다시 새 옷을 입게 되니까 그것도 건지는 겁니다. 건지는 것이 얼마나 귀중인지 여러분은 모르실 겁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차원도 모습도 가져올 수 있고, 어느 집에 인연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바로 자기 인생이 주어지는 걸

속에 있는 생명들의 집이 되죠? 이 집이 무너지면 안 되죠? 이 집은 안의 생명들을 보호하고, 안의 생명들은 작용을 해서 이 몸을 보호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마음 씀씀이대로 바로 속에 통신이 돼서, 대뇌로 통신이 돼서 소뇌를 거쳐서 중뇌로, 중뇌에서 책정을 내려서 사대로 통신이 됩니다. 사대로 통신이 되면 거기에서 공경마다 바로 부족한 것을 채우면서 다 이렇게 튼튼하게 이끌어 갑니다. 이 대뇌로 통신이 안 되면 책정을 내릴 수가 없어서 몸속에서 작용들을 못하죠. (이마를 짚어 보시며) 여기가 명령서인데요. 그러니까 의학도 심성의학이 돼야 하고 문화 문명을 잘 이

가 있고 지장이 있고 관세음보살이 있고 용신이 있고 자신이 있고, 매사에 아니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럴 이름 해서 보살이라고 했지마는, 과학자들이 말하는 그대로 지금 현실에서 하나하나 실현되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를 모르고서야 어떻게 남을 알며 남을 모르고서야 어떻게 이끌어 갈 수 있겠습니까? 이 마음 하나가 그렇게 귀중합니다. 마음 하나를 이렇게 생각하느냐 저렇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위치가 주어집니다. 자기 위치가 주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위치도 주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 마음과 상대방의 마음의 주인공

이게 평등하게 해 나갈 수 있는,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된단 얘깁니다. 우리가 지금 국내에서 볼 때에, 전 세계로 봐도 그렇지만은 더더욱 한 가정과 같은 우리 국가에서 우리 국민들이, 그 중에서도 자녀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자기가 자기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기독교나 가톨릭교도 불교, 모두가 타의에서 구하고 있습니다. 나도 전자가 천주교에 입교를 해서 좀 다녀 봤습니다마는, 자기가 잘못해 놓고서는 고해성사를 한다는 게 천부당만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어떻게 저런 건 어떻게 하고 발걸음을 걷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됐습니다마는 말입니다. 내가 만약에 타의에서 구한다면 내 어머니 못났다고 잘난 판 어머니 찾는 거와 똑같습니다. 못났다고 잘났는지 자기가 자기 몸을 움직여서 하고 가게 하고 오게 하고 보게 하고 듣게 하고 만나게 하고 이러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억겁 동안 진화를 시켜서 형성시켰고요. 지금도 형성시켜서 이끌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기, 참자기를 못마땅하게 하고 자기 심봉에 마음을 기울이지 않아서 자기 바퀴가 제대로 굴러가지 못한다면 그거는 손해도 아주 이루 말할 수 없는 손해죠.

그래서 나는 기독교인이 오든 불교인이 오든 지 다 똑같이 대답해 줍니다. 내가 대답하는 거는 아니지만 말입니다. 내가 했다고 하는 거는 아니지만 말입니다. 다 더불어 같이 한 거 때문입니다. 타의에 있는 게 아니라는 얘깁니다. 제 나무는 제 뿌리를 믿어야 제 나무에 모든 에너지를 흡수해서 올려보내고 또 태양력이나 공기력을 흡수해서 내려보내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익이 있고 공력이 있는 거지 어떻게 이 뿌리가 저 뿌리를 믿습니까? 이 뿌리가 저 뿌리를 믿어서 에너지가 온다면 어우, 오죽이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선지식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나무가 네 뿌리를 믿어서 푸르게 꽃이 피고 열매를 맺길래 제 나무에서 익혀라. 제 나무에서 익는다면 그 무르익은 과실의 맛은 일체 만물만 색이 다 먹고도 되느냐니라.” 과실 하나 가지고도 말입니다. 그거를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 보세요. 종자 하나를 심어서 그 종자가 한 나무에 얼마나 많이 열매를 낳아, 열리면 다들 먹고고요 그 종자는 되느냐? 잘라 데워 먹어도 되느냐?

(다음 호에 계속)

* 위 법문은 1996년 1월 21일 국내자원보호회에서 설립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나 한마음선원원에서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너부터 믿고 너부터 알아라!
너를 알아야
하나로 돌아가는
이 우주의 섭리를 다 알 수 있느니라!

너를 모른다면
어떻게 남을 알 수 있으며
우주의 섭리를 알 수 있겠느냐!

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이미지를 끝까지 어떻게 남기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세세생생에 주어진다 고 봅니다. 자기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세세생생 주어지는 것이니까, 세세생생 창상 없는 감옥에서 해매고 돌게 될지는 자기의 소관입니다. 모두.

우리가 지금 잘 알아야 할 문제는, 소년 소녀 가장 돌기라고 하지만은 이 외에도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한생각의 보시가 있습니다. 이 한생각의 보시라는 것은 자기 몸같이 생각하고 자기 아픔같이 생각하고, 자기 부모같이 생각하고 자기 자식같이 생각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라는 게 아닙니다. 모두가 들어 아닌 깨달입니다.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고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고, 현재의 부모만 부모가 아니고 현재의 자식만 자식이 아닙니다. 수억겁을 거치면서 그렇게 해 왔는데 어느 때의 내가 인생으로 출현했을 때에 나라고 하겠습니까? 내 부모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 그저, 등록금을 못 내서 학교를 못 가는 애들을 봐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스스로 생겨야 되는 거죠? 억지로서는 못하죠. 내 우물 안만 생각하지 마시고 바다를 보시란 얘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주머니 속에서 허덕거리고 있는 인생살이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마음은 광대하고 무변하고 묘한데 나 마음은 그 공기주머니를 뛰어넘어라, 그러면 자유권을 얻느니라.”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더 시급하게 요청되는 것이 뭐냐? 우리는 지금 이 몸뚱이

를 걸어 간다 하더라도 이것은 심성이 드러져야 된단 얘깁니다.

마음은 창살이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몸은 놔두고 지금 택들의 집을 다녀와 보세요. 멀든지 가깝든지 말입니다. 자기 회사를 갔다 오려고 해도 지금 이 자리에 앉은 채 갔다 오실 수 있어요. 어디에 뭐가 놓이고 어디에 뭐가 놓인 것까지도 다 알고 있죠? 그것과 같은 겁니다. 우리가 이 마음 통 안에서, 즉 육통 안에서 벗어나려면 눈전에서 자유권을 얻어서 마음대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육통에서 벗어나야 바로 이 속에 있는 천차만별의 의식들을 보살로, 천백억화신으로 화하게 해서 응신으로 나타내게 한다.”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 시냇물만 한다면 ‘분자로 화해서 입자로 모두가 나뉘다.’ 이 소리와 똑같은 얘깁니다. 그래서 입자로 나뉘어서 그 입자가 또 원자가 되고 이렇게 하듯이 말입니다.

길게는 얘기 못하겠어서 짧게나마 그냥 건넌 건넌 해 나가는 겁니다. 말로 어떻게 하리까? 몸속에서 움직여서는 것과 우주의 섭리와 인간살이의 섭리가 다, 천지인이 움직여서는 것도 모두가 일치합니다. 불법승이라고 하는 그 자리도 바로, 내가 생각이 없을 때는 부처요 생각을 냈을 때는 법신이고 움직여했을 때는 화신, 보현신이란 얘깁니다. 부처님의 마음 하나가 그렇게 광대해오. 부처님의 마음 하나가 깨달은 마음 하나라면 바로 부처님의 마음으로서 이름이 지어진 아홉이 있고 아미타가 있고 미륵이 있고, 또는 칠성부처

는 다 똑같습니다. 근본, 생명의 근본, 이거는 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불을 켜면 거기도 불이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가설만 됐다면, 그래 자신과 부모, 형제가 가설이 돼 있을 때에, 또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것이 가설입니다. 무의 가설. 이 모두가 그렇게 연결이 돼서 우리가 이 지구라는 도량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도량이라 하면 우주 법계, 과거 현재 미래, 삼라만상을 다 한꺼번에 한도량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에게 시급하다는 게 뭐냐? 우리의 마음을, 정신계를 모르기 때문에, 지구라는 우리의 집, 공기주머니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들이 차원이 높아지지 못해서 지구에서 에너지가 부족하다 해도 그 에너지를 끌어 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못된단 얘깁니다. 이 허공에도 모든 생명들이 꼭 차 있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끌어 쓸 수 있다는 사실은 부처님께서 여러번한테 벌써 미리 말씀해 놓으신 겁니다. 여러분이 아신다면 그대로 이 자리에서... 삼천 년 전도 그대로 이 자립입니다. 후도 없고 전도 없습니다.

그러니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 가정을 지켜 나가고 우리 사회를 지켜 나가는 데도 이 마음이 들어 아니라는 도리를 확고부동하게 알고 내 마음이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벗어나는 마음이 아니라 체가 없는 데는 체가 없는 대로 옹무루 하고, 옹무루는 거는 보이지 않는 데서 작용하는 것을 옹무루라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데서 작용도 할 수 있고 보이는 데서 작용도 할 수 있고 이래야만 이

한국전통따주기지도사 강좌(1박 2일) 안내

한국전통따주기란

우리 민족 조상으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민간 따주기로써 예를 들면, 급체 시 엄지손톱 뿌리 밑을 바늘로 따주기 하면 신기하게도 금방 내려옵니다. 온 몸을 이렇게 따주기로 낮게 하는 민족 고유 의 습기로써 자신 건강관리 비법입니다.



신비의 전통따주기 특징

- 신경을 자극하고, 탁한 피를 맑게 하며, 부족한 피를 생성 시킵니다.
- 월 1회 기본 따주기로 병 예방 및 건강관리합니다.
- 따주기를 접한 날부터 몸이 낫기 시작 합니다.
- 평생 잊지 않는 위치 알기에 10분이면 충분 합니다.
- 간단하고, 부작용이 전혀 없습니다.

따주기 활용

- 자신 및 가족 건강관리
- 학생 포교(교생, 대학생 등)
- 따주기 사회봉사 및 포교
- 전통따주기지도사로 활동
- 생활속 비상따주기로 활용(풍, 급체, 기절, 경기 등)

강좌세부 내용

가. 1일차(09:00 ~ 22:00)

- 우주의 기원
- 인연과 탄생, 명부전, 병(공해)
- 전통따주기 개요, 인체의 구조
- 5행으로 본 인체
- 전통따주기, 각 따주기
- 피가 생성되는 기초따주기
- 신비한 비장따주기
- 병 예방 비법

나. 2일차(09:00 ~ 13: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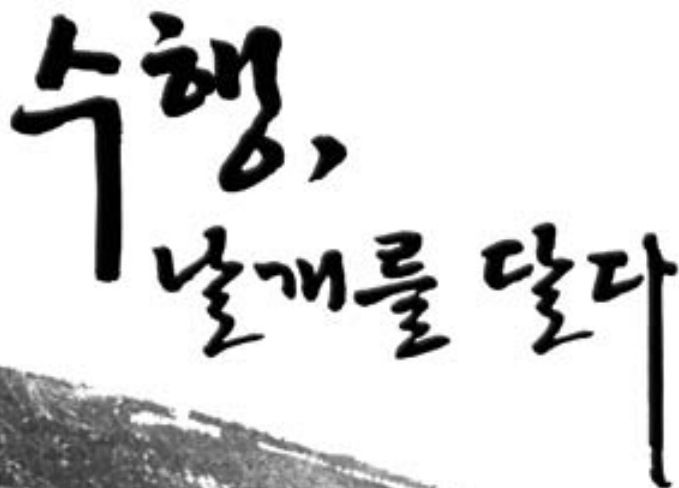
- 마음의 세계(마음 10단계)
- 수치의 비법
- 대운, 연운, 월운, 일운 비법
- 수상 보강, 내 · 외 궁합 비법
- 작명 비법
- 종합, 질의 및 답변, 수료증 수여

강좌 일정 및 장소 (선착순 각 16명)

- 강사 : 한국전통따주기연구원 직강(교수, 공학박사)
- 일정
- 충남청양교육장 : 2008. 1. 12(토) ~ 1. 13(일) (금요일 오후 도착가능) 40만원(순환토방 숙박 및 자연식단 제공, 따주기 도구 및 비법교재 제공)
- 부산교육장 (부산평생교육원) : 2008. 1. 26(토) ~ 1. 27(일) 35만원(숙식제공, 따주기 도구 및 비법교재 제공)
- ◇ 준비물 : 필기구, 편한 운동복(츄리닝) 및 개인 세면도구

※ 문의처 : 041)944-2237 (010-3234-2237)

한국전통따주기연구원



이 몸을 선창에 맡긴지 50여 주 여느듯 나도 모르게 백발이 성성해졌네. 돌아보니 구하고 채우고에 동분서주하느라 발밑도 못 밟히고 심전(心田)에 여수(旅愁)만 더 했네. 이제 겨우 철들어 서둘러 병축을 들었으나 가을이 다 갔는데 잔화가 난만한들 얼마나 견디겠냐? 고요한 밤이면 깊은 생각에 더욱 잠 못 이루는 누가 있어 뱃속을 파고드는 이 통탄을 일겠는가?

내 이제 몸을 태산처럼 하여 일체의 왕래를 끊고 날마다 천계에 나가 속진을 씻어 내면서 눈, 귀, 입, 막는 그러한 수행으로 잔년을 다스려서 빈 배로 소요하는 이런 것으로 선력을 심을 것이다.

- 본문중에서



각양 성원(覺醒 性元) 스님
· 1928년 출생 - 1959년 경주 불국사 석굴암에서 출가
· 1969년 부산 범어사 동산대중사 문하에 입문
· 1961년 부산 범어사 금강재에서 비구계 수지 이후 1989년 까지 30년 간 중주에 종사
· 1988년 - 2006년 재반선불 또는 남아 동지에서 약 20년 간 수선안거 성안
· 2007년 현재 남해 화엄사에서 안거 중
*본 [수행, 날개를 달라]는 이 화엄사에서 안거 중에 얻은 것이다.